91. 만약 지금 당신이 나를 볼 수만 있다면. 당신은 지금 나를 볼

수 없으며 앞으로도 역시 볼 수가 없을 것이다. 그 이유를

말하자면 아주 지루한 설명이 되겠지만 어쨌든지 그 결과 전체는

꼭 마술처럼 신기하기만 하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이 방에

들어온다면, 백지들이 놓인 책상 앞에 있는 의자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텅 빈 방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누구의 손에도

잡혀 있지 않은 펜 하나가 그 종이 위에서 춤을 추며 이

문장들을 만들어가다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가끔 공중에

멈추는 것을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당신은 이에 매료되든가

아니면 공포에 질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게도 내가 바로 그 펜을 잡고 있는 사람인데, 만약

당신이 나보다 더 민첩하게 움직인다면 당신은 나를 꽉 붙들어서

비록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것만 빼고는 다른 인간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인간이 바로 이 방에 있다는 감각을

만족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그 의자를 집어들어서 나를

죽도록 때릴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내게는 슬픈 일이 되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그것이

이상하다고 할 수도 없다. 내 상태는 물론 인간적 개성이 전혀

없는 데다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괴기하기 때문이다. 내

상태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데,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호기심이란 아주 잔인한 본능인 것이다.

이렇게 사는 인생은 매우 힘든 일이다. 보통 한 군데에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움직여야만 한다.

사실 이 책은 투명인간의 회고록이라기 보다는 투명인간의

모험담이라고 묘사해야 될 것이다. 내게는 나의 유년

시절이라든가, 분명히 당신의 고민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을

내 특이한 사춘기의 특이한 고민 따위를 늘어 놓을 의도는 전혀

없다.

게다가 우리는 지극히도 정상적이었던 나의 지적, 도덕적 성장

과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토론해야 할 필요도 없다. 앞에서

말한 내 모든 과거들이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정말 신나고도

천박한 이 이야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것들이 인간의 존재 조건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희망의

불을 밝혀 줄 것 같지도 않다. 나는 속담 그대로, 인간들은

상대의 아픈 점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 일의 시초 전에 일어났던 모든 일은 당신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까지 34년을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왔었다.

물론 그것이 내게는 아주 근사하고 매력적이었던 세월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당신은 유가증권 분석가의 회고록이라고

제목이 붙은 책을 읽고 싶어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쨌든간에 그저 평범하다고 밖에는 볼 수 없었던 내 인생도

정의 바로 그 한가운데에서, 큰 일은 아니었지만 기괴하다고

밖에는 할 수 없는 과학적인 실수 때문에 뉴 저지주의 조그맣고

동그란 땅 조각 하나가 완전히 눈에 보이지 않게 되어버린 일이

일어났었다. 그것이 내 운명이었는지 하필이면 나는 문제의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 땅 위에 있었다. 바로 인접한 주위의

물체들과 함께 나는 그 즉시에 변신하고 말았다.

석화된 화석 속에서 원래의 생물체의 구조가, 다른 광물

분자들에 의해서 다시 재구성되는 원리처럼 내 몸도 에너지의

미세한 단위들의 살아 있는 구조에 의해 정확하게 재구성되었던

것이다.

내 몸은 내가 지금껏 살펴보고 판단한 바에 의하면 아주

소소한 차이말고는 전과 하나도 다를 것 없이 기능을 잘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차이를 전혀 볼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이 일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라는 점이다. 우리 인간들 각 개인이 이파리나

눈의 결정체처럼 각자가 고유하고 특이하고 어쩌고 하는 말은

나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바람이 잎들을 수많은 세대에 걸쳐서

땅에 흩어 놓는다면, 어떤 때는 그곳에서 각자의 개성의

형이상학적인 안식을 찾기는 힘들 것이다.

하여간에 내가 그 상황에 말려 들어갔었던 사건은 당신이나 나

같은 보통 인간의 개인적인 특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고

말하고 싶다. 우주의 주사위가 불가능하고도 재수없는 곳으로

던져졌던 모양이었다. 그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 아마도 하나님의

눈은 스패로 지대공 미사일에 가 있었던 모양이다.

내 눈이 가 있었던 곳은 주로 앤 앱스틴과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그녀의 실크 블라우스가 황홀하게 미끄러지고 있었던

사랑스러운 젖가슴이었다. 나는 청록색의 무늬가 그려진 그 옷

밑의 젖꼭지들을 볼 수 있었고 그녀가 차 안에서 몸을 바깥으로

돌렸을 때에는 블라우스 단추들 사이로 그 황홀한 살결도 볼 수

있었다.

당신이 운명적인 아침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그때, 우리는

뉴욕을 떠나 프린스턴으로 가는 기차 안에 있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폭풍을 알리는 시커먼 구름들과 사월의 햇빛이

극적으로 차례를 바꾸면서 계속해서 하늘을 덮고 있었던 그

아침은 이 사건에 적당히 알맞는 불길함을 갖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내가 본 것은 거의 햇빛뿐이었다.

전날 밤 술을 많이 마셨고 잠을 제대로 못 자기는 했지만, 그

빛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꿈 같은 생기처럼 보였고, 그 기분이

곧 머리를 찌르는 두통과 미치도록 잠을 자고 싶은 욕망으로

자라날 것임을 내 경험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 내 마음과

육체는 눈부신 봄날의 아침과 앤의 하얗고 매끈한 살결이 나를

고통스럽게까지 만들고 있던 황홀함에 취한 듯한 기분 외에는

아무 것도 느낄 수가 없었다.